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56)

# 以災異策免

이재이책면

재이로 면직시켰다.



권중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바지사장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적 주인이나 상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사정(事定)으로 정면에 나설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사장(事長)으로 시켜 놓고 사업을 경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명목상의 사장인 이 바지사장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는 정상적이지만 않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하니 이러한 바지사장이 많을수록 그런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공식사회에도 그러한 일이 있는 것 같다. 후한 안제(安帝) 영초 원년(107년)에 태위(太尉)인 서방(徐防)을 책서(策書)로 면직시켰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지 아니하여 다시 사공(司空)인 윤근(尹勤)을 면직시켰다. 태위나 사공은 삼공(三公)에 해당하는 높은 관직인데, 이들을 면직시킨 이유는 바로 재이(災異)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또 도적이 들끓었는데 이를 안정시킬 책임을 진 태위(太尉)에게 책임을 지웠다는 것이다. 그 말은 직책으로 보아서 이들을 면직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또 수재가 여러 곳에서 일어나니 수리(水利)를 책임진 책임자인 사공을 면직시키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로부터 100년쯤 뒤에 철학자인 중장통(仲長統, 180~220)은 그의 글 《창언(昌言)》에서 이 사건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재이는 모두 외척과 환관으로서 신하가 된 자가 가져온 것인데 도리어 태위와 사공 등 삼공(三公)을 나무라며 죽이거나 면직시키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푸른 하늘에 대고 절규하고 부르짖으면서 피눈물을 흘리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며 이들이 억울하게 면직되었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나라에 어려움이 다가온 것은 외척과 환관들이 잘못했기 때문이고, 서방이나 윤근 같은 사람이야 명색만 그럴듯하게 삼공(三公)이라는 높은 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실제로 독자적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이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이 였다.

중장통은 끝으로 '과거에는 말은 일은 무거웠으나 책임은 가벼웠지만, 지금은 말은 일을 가벼운데 책임은 무겁다.'라고 비판하였다. 즉 과거에는 직책이 주어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고 그 일의 성패에 따른 책임은 크지 아니하여 재량껏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안제 때에는 직책은 높은 것을 주면서 실제로는 외척이나 환관들이 모든 권한을 쥐고 흔들다가 문제가 터져서 누군가 책임을 지게 하여야 일이 마무리될 즈음에 가면 아무 권한도 없었던 높은 관료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제 시대의 이 기록을 읽노라면 바로 바지사장이 생각났다.

사실 이 시기에 안제는 황제이긴 하지만 겨우 13살이어서 실제 정치는 황태후인 등수(鄧綏)가 하고 있었다. 등수는 화제(和帝)의 황후로 화제가 죽자 황태후가 된 사람이다. 그녀는 당시 화제의 황후로 음서(陰氏)가 있을 때 황궁으로 들어갔다.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던 시대였기에 등수는 그 행동거지가 딱 유교적 덕목에 맞도록 행동하였다. 그런 까닭에 상대적으로 그러하지 못한 음황후는 결국에 질투가 심하여 부덕(婦德)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죄목으로 폐위되었고 등수가 황후로 올라갔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희생하는 척하였던 그녀의 행동은 실제로 황후를 내쫓고 자기가 황후로 올라가려는 고도로 계산된 행동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그것은 화제가 죽고 황실의 최고 권위자가 된 다음부터의 행동 때문이다. 그녀는 후사가 없이 죽은 화제의 후사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26살 된 황태후가 선택한 다음 황제는 탄생한 지 겨우 100일 되는 유훈(劉隆, 105~106)이었다. 100일 밖에 안 된 사람을 후계자로 선택하여 황제로 세운 것부터 정치는 자기가 하겠다는 뜻이다. 유훈에게는 그보다 나이가 많은 형 유승(劉勝)이 있었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유훈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유훈은 등극하고 1년도 안 되어 죽어 상제(殤帝)로 불리니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오히려 유훈이었고, 그때까지도 유승은 살아 있었으니, 등태후가 유승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선뜻 납득(納得)할 수 없다.

하여간 상제가 죽은 다음에 다시 황제를 선택해야 하는 등수는 다시 13살밖에 안 되는 유훈(劉祐)을 골랐다. 이 역시 그녀가 권력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중이 충분히 반영된 조치였다.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등수는 자기 친정 오빠 등에게 권력을 행사하도록 맡겨 두어 외척 등씨 집안에서 정치를 좌지우지하였다. 그러나 실사 태위나 사공

같은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제대로 자기 의지를 갖추고 정치를 할 수 없었을 터였다. 그런데 그 직위 때문에 면직된 것이다. 바지사장이 책임을 지고 뒤에 있는 진짜 권력자는 멀쩡하게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민주화가 되었다는 우리 사회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바지사장에게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자리에 왜 갔느냐고 나무랄 형편은 아니다. 오죽해야 그러한 자리인 걸 알면서 간 것을 보면 그저 딱할 뿐이다. 다만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였던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등태후는 수많은 바지사장을 임명하면서 그 죽기까지 권력을 행사하였지만, 그가 죽자 많은 사람이 등씨들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기에 등씨(鄧氏)들은 나라로 떨어졌다. 거의 멸문(滅門)의 상태까지 갔으니 등태후는 결과적으로 자기 친정 집안을 위하여 권력을 그들에게 준 것이 단견(短見)이었음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의 말로(末路)이다.

요즈음 거의 반년 가까이 중요한 뉴스거리로 우리들의 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이른바 대장동 사태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사건과는 조금 다르다. 그것과 관련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벌써 다섯 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報道)다. 나는 그 실체를 알 기 없는 사람이지만 이들이 실제 사건의 주모는 아니면서 그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혹 바지사장 같은 위치에 있기에 원래의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결국 책임을 지게 된 부당감 때문에 이리하였던면 이는 호소할 곳 없는 억울함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는 그 일의 원래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 후 다음에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을 면해보려는 알팍한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한 일에는 자기가 책임지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빌어 본다.

## 울산청장년회 임원진 전국체육대회 성공 기원 시조 묘소 참배



안동권씨 울산청장년회 권명달 회장을 비롯한 권혁환 준비위원장, 권응목 총괄 사무국장, 권기대 총무 부부와 권오달 고문의 부인, 권형래 부회장, 권오설씨 부인 등 임원진 11명은 제32회 안동권씨 청장년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지난 2월 26일 안동시 서후면 능곡리에 있는 시조 묘소와 아시조 낭중공 단소를 참배하였다.



하여 안동권문의 성전인 전국청장년체육대회가 무사히 성공리에 끝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제물을 준비한 권명달 회장 부인 배재분 여사 등도 각각 잔을 올렸다. 일행은 아시조 낭중공 단소로 이동하여 제물을 올리고 초헌관 권혁환 준비위원장, 아헌관 권형래 부회장, 종헌관 권오설씨 부인이 헌작하였다.

참배를 모두 마치고 능동재사 옆 평창공과 학림공 두 분의 재단을 둘러본 후 근처 석송가든에 들러 점심 식사를 한 후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권혁환 준비위원장

## 부산 등산회, 개인택시회 정기총회 개최



부산 개인택시종친회 정기총회



등산회 정기총회

부산중친회 산하 부산등산회(회장 권영남)는 지난 2월 25일(토) 11시 부산의 진산 금정산의 남문 쪽 상부에서 계묘년 시산제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송암(성음) 부산중친회장을 비롯한 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산제는 제단에 등산회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한 음식을 진설하고 차례 절차에 따라 예를 갖추어 초헌관에는 성음 종친회장, 아헌관은 영인 등산회장, 종헌관은 영우 산행대장이 맡아 엄숙히 진행되었다.

축관인 운산(중원) 등산회 고문은 축문에서 '안전한 산행'과 '등산회 활성화'를 축원하고 '자연 보호'에 정성을 쏟을 것을 약속하였다. 시산제에 이어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제8대 회장에 서암(영인)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하였다. 영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등산회 부흥에 진력할 것을 다짐하고, 회원들에게도 친목 도모와 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인 등산회 참여를 당부하였다.

한편, 부산 개인택시종친회는 지난 3월 20일 저녁 부산 연산동 옛골도성 음식점에서 제 20차 정기총회를 겸한 회장이·취임식을 가졌다. 회원과 초청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중남' 전임 회장은 이임사에서 코로나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을 피력하고, 새 회장을 중심으로 더욱 단합하고 노력해 단체 활성화를 이루자고 역설하였다.

신임 오상 회장은 취임사에서 정기총회 축하객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부족하지만 단체원 화합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회원 확대도 단체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다.

부산 개인택시종친회는 개인택시 사업자들로 결성된 단체로서 대구와 함께 전국에 둘 밖에 없는 귀한 단체이며, 개인이 택시 운행 시에 부산중친회와 개인택시종친회를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우리 종친회의 움직임은 홍보 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권재영 부산중친회 사무국장

# 2023年 3月 宗報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2.28. ~ 3. 28. 총 납부자 188명 지사·지국 6곳

(이름순)												(단위: 원)			
*권원철	30,000	권동기(안동)	30,000	권순식(인천)	30,000	권영수(경기의정부)	30,000	권오연(부산)	30,000	권원순(대구)	30,000	권지안(천안)	30,000	권혁록(경기용인)	30,000
권갑현(영주)	30,000	권동일(안동)	30,000	권순열(대구)	30,000	권영식(인천)	30,000	권오연(예천)	30,000	권윤호(대구)	30,000	권진택(목포)	30,000	권혁록(진천)	30,000
권건보(경기수원)	30,000	권동환(포항)	30,000	권순욱(서울강서)	30,000	권영신(경기양평)	30,000	권오점(안동)	30,000	권이도(부산)	30,000	권천영(서울용산)	30,000	권혁무(대구 남구)	30,000
권건춘(서울강남)	30,000	권두채(전주)	30,000	권순창(안동 안흥동)	30,000	권영익(안동 용상동)	30,000	권오정(영주)	30,000	권인식(경기용인)	30,000	권천일(서울은평)	30,000	권혁무(대구 수성구)	30,000
권경석(대전)	30,000	권만택(경주)	30,000	권순채(경주)	30,000	권영운(경기김포)	30,000	권오주(서울강남)	30,000	권재근(대구)	30,000	권철(포항)	30,000	권혁수(대구)	30,000
권경식(청주)	30,000	권명인(경기의정부)	30,000	권순채(서울송파)	30,000	권영진(경기안양)	30,000	권오주(안동)	30,000	권재만(인천)	30,000	권청일(대구)	30,000	권혁열(경기구리)	30,000
권경일(대구)	30,000	권미송(경산)	30,000	권순욱(경기용인)	30,000	권영창(경기의왕)	30,000	권오준(경기부천)	30,000	권재모(산청)	30,000	권충현(천안)	30,000	권혁재(진천)	30,000
권경현(부여)	30,000	권민집(대구)	30,000	권영각(경기이천)	30,000	권영철(제천)	30,000	권오진(거창)	30,000	권재원(안동)	30,000	권철용(수원)	30,000	권혁화(성주)	30,000
권경호(영양)	30,000	권병균(천안)	30,000	권영기(아산)	30,000	권영태(구미)	30,000	권오찬(청송)	30,000	권재원(정읍)	30,000	권태문(진천)	30,000	권혁훈(진천)	30,000
권광대(의성)	30,000	권병정(경기양평)	30,000	권영구(제천)	30,000	권영훈(서울강남)	30,000	권오철(강릉)	30,000	권재윤(경기여주)	30,000	권태복(상주)	30,000	권호달(제천)	30,000
권구민(서울송파)	30,000	권병호(서천)	30,000	권영국(옥천)	30,000	권영훈(서울송파)	30,000	권오철(영주)	30,000	권재홍(완주)	30,000	권태연(제천)	30,000	권호철(대전)	30,000
권규석(제천)	30,000	권봉섭(단양)	30,000	권영기(경기동두천)	30,000	권오경(경기남양주)	30,000	권오출(의성)	30,000	권전택(경산)	30,000	권태원(경기김포)	30,000	권희문(홍성)	30,000
권규택(서울중구)	30,000	권상문(경주)	30,000	권영기(영덕)	30,000	권오권(진주)	30,000	권오현(대구동구)	30,000	권준철(정읍)	30,000	권태은(구미)	30,000	권희영(춘천)	30,000
권규림(군산)	30,000	권상열(대구)	30,000	권영덕(안동)	30,000	권오균(진천)	30,000	권오현(서울강남)	30,000	권정수(서울서초)	30,000	권태인(대구)	30,000	지사지국 납부지역	
권기훈(경주)	30,000	권상학(경주 황성동)	30,000	권영동(영주)	30,000	권오기(서울영등포)	30,000	권오홍(경산)	30,000	권정열(진주)	30,000	권태정(서울영등포)	30,000	논산중친회	300,000
권기섭(예천)	30,000	권상호(안동)	30,000	권영두(의령)	30,000	권오기(예천)	30,000	권옥술(서울강남)	30,000	권정택(상주)	30,000	권태진(부여)	30,000	안동중친회	30,000
권기열(영주)	30,000	권석주(광주)	30,000	권영락(성주)	30,000	권오달(서천)	30,000	권원(서울서초)	30,000	권정훈(인천)	30,000	권태훈(경기시흥)	30,000	영주중친회	200,000
권기원(안동)	30,000	권석환(안동)	30,000	권영래(아산)	30,000	권오복(대구)	30,000	권원준(서울성북)	30,000	권중수(대구)	30,000	권택중(대구)	30,000	정조공파	40,000
권기호(안동 용상동)	30,000	권선택(서울용산)	30,000	권영록(서울종랑)	30,000	권오선(경기이천)	30,000	권원준(영주)	30,000	권중형(영주)	30,000	권택형(상주)	30,000	통영중친회	30,000
권기훈(영주)	30,000	권성덕(영덕)	30,000	권영모(대구)	30,000	권오선(아산)	30,000	권용석(경주)	30,000	권중호(완주)	30,000	권학주(완주)	30,000	화성위중중	460,000
권기훈(서울광진)	30,000	권성유(제천)	30,000	권영목(서울종랑)	30,000	권오섭(진천)	30,000	권용오(강릉)	30,000	권주호(서울노원)	30,000	권한욱(대구)	30,000		
권덕근(경기용인)	30,000	권세광(경기부천)	30,000	권영민(창원)	30,000	권오성(서울강남)	30,000	권용은(익산)	30,000	권중규(안동)	30,000	권한준(영주)	30,000		
권덕영(함양)	30,000	권세원(안동)	30,000	권영복(경기고양)	30,000	권오성(서울강서)	30,000	권용태(포항)	30,000	권중길(포항)	30,000	권혁근(경주 이소리)	30,000		
권덕중(서울성북)	30,000	권수익(제천)	30,000	권영복(서울용산)	30,000	권오성(경양)	30,000	권용태(대구)	30,000	권중석(경산)	30,000	권혁길(강릉)	30,000		
권덕희(양구)	30,000	권순결(영주)	30,000	권영부(경기김포)	30,000	권오수(경기광주)	30,000	권원대(대구)	30,000	권중현(함양)	30,000	권혁길(경기김포)	30,000	총 6,700,000원	

\*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 납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시니 대중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